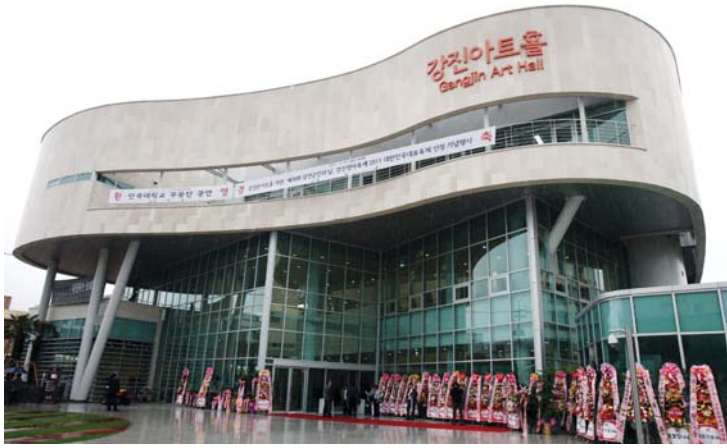


전남 중부권

BTL사업으로 건립된 강진아트홀 20년동안 갚아야 할 빚만 590억



총비용 817억 중 군비부담률 70%... 군 재정 부담 가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건립된 강진군 아트홀(문화복지 종합 타운)이 빈약한 강진군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앞으로 20년동안 갚아야 할 임대료 성격의 총 비용은 817억 83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진군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임대료 형

태의 비용은 590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말 아트홀 군비부담은 준공시점보다 110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군비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공사비 물가상승비를 자치단체 부담으로 시설비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비용 817억원중 군비

부담액이 590억5300만원을 차지하는 반면 국비지원금은 227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비중 가운데 국비 지원율이 27.7%를 차지하고 군비부담률이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연간 업체에 지급하는 임대료 역시 ▲군비 29억5400만 원 ▲문체부 6억 3000만 원 ▲복지부 5억3300만 원 등 총 40억9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물관리비 14억원과 공연운영비 4억원, 관리회사 22명·큐레이터 인건

비 2억원 등을 감안하면 총 60여억원으로 늘어났다. 주민 임모(강진읍)씨는 “지자체도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빚을 지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최근 기초수급으로 지목된 강진군의 부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결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떠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문을 연 강진 아트홀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대공연장(718석)·소공연장(174석)·전시실을 갖춘 문화동과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지동으로 구성돼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지난 6일 강진군 대구면 미산마을 앞 갯벌에서 한 주민이 파래를 채취하고 있다. 썩사름한 맛이 독특한 파래는 단백질과 무기염류, 비타민 등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올 추진사업 자체설계단 운영 예산 2억 9000만원 절감 효과

나주시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2억9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주민숙원사업 및 기계화경작 로 확·포장사업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시킬 목표로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자체설계단을 운영한 결과 용역비 2억9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규모로는 총 221건에 47억2500만 원으로 마을 안길·진입로·농로 포장, 하수도청배, 응·

화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단지

200억 투자 이오스솔라 등과 협약 체결
청사옥상·주차장 등 내년부터 본격 운영

화순군이 청사옥상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이오스솔라 컨소시엄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후 총 200억원을 투자해 5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다. 군은 연간 1억5000만원의 태양광 사업 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수익과 최초 투자시 5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5년 임대기간 종료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화순군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연간 1억4000여만원의 발전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군과 (주)이오스솔라는 지난해 12월 28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 북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휴업일 강제 지정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 이르면 이달 시행

전국 최초 조례 개정... 상인들 "동네 상권 살리기" 환영

대형 할인점 입점에 따라 지역상권 교사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화제다. 전주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구성은)의 발의를 통해 관내 대형 할인점과 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대형 할

인점과 SSM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된 후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의회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대형 할인점의 총 매출 중 토요일 매출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말 매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의 결정을 따라 의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집행부(전주시)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효력은 SSM은 공포일로부터, 대형 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

부터 발생한다. 특히 대형 할인점과 SSM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이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전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6일 "전주시의회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의 일요일을 지정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참여연대는 "골목시장까지 장악해 지역경제의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들 점포의 횡포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매월 2차례 휴업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 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중이다. 이들 대형할인점은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조례에 야망 갖지 않고 휴업에도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드림스타트센터 영어독서 낭독교실 운영

전주 드림스타트센터는 7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독서 낭독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학원에 다니기가 어려운 저소득 어린이들이 영어낭독 훈련을 통해 영어 어휘력·독해력과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참여 아동들은 미국 컴퓨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장르의 재미있는 영어책을 소리 내 읽고, 최첨단 음성인식 기술의 피드백을 통해 발음 등을 교정받으면서 실력을 쌓아가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군산시는 오는 20일까지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창조하는 '2012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군산시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자생단체가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63-450-6511)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순창 옥천인재숙 인재육성 요람으로

서울대 등 명문대 37명 합격생 배출



순창군이 인구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사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명문대 입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해 49명의 수료생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 27명이 합격했다. 수도권 대학에는 서울대 1·연세대 1·고려대 3·성균관대 3·서울시립대 2명 등 27명이 합격했으며, 부산대·순천향대·전남대·전북대·경북대·인천대 등 지방대에도 10명이 합격했다. 이는 관내 3개 고교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교육과 '옥천인재숙'의 방과

후 학습 등 상호 보충적인 역할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과거 10여년 전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했지만 최근 8여년 동안 순창군과 각 학교에서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난 2006년

부터 서울대 7명을 비롯한 명문대 진학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과 2007년, 2010년에 서울대 합격자가 각각 2명·3명·1명 명으로, 올해 1명 등 총 7명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대 명문대학에 합격한 인원도 27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 3억투입 사회인 야구장 6월 건립

전주시 사회인 야구장이 오는 6월 효자공원 묘지 주차장 부지에 건립된다. 전주시는 "부족한 생활야구장 확충을 모색한 결과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 총 3억원을 들여 야구장 1면과 그물망 설치 등을 상반기 내로 완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 통합야구협회에 등록된 사회인 야구팀과 야구를 즐기는 야구 동호인 팀은 60개가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전주 야구장과 삼천동 전라정보대학 등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여행사 로비' 사법처리 대상 10여명 달할 듯

전북지역 한 여행사 대표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1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장전배 전북 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여행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1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은 이미 마

무리하고 개별 행위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이면 실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법처리 대상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보건소 둘째주 화요일 '모유 수유 클리닉'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보건복지부 지역 특화사업인 '모유 수유 클리닉'을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운영한다. 시 보건소는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를 외래강사로 초빙해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 자세 및 올바른 젖 물리기 교정 ▲모유수유의 장애 요인 제거 등을 중심으로 클리닉을 운영한다. 특히 시 보건소는 매월 사전상담 및 예약제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김제경찰 학교 졸업식 뒤풀이 원천 봉쇄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이달 중순까지 관내 각 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경찰인력을 확대 배치해 강압적 뒤풀이를 원천 봉쇄한다. 김제경찰은 졸업식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고, 옷을 벗게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법을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졸업식 전까지 일선 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실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